

세계도시동향

헤드라인뉴스	1	도시 녹지·가로수에 제초제 ‘추방’	바르셀로나
행정·교육	2	지역정책 주요 이슈에 시민의견 반영 플랫폼 구축	버밍엄
환경·안전	4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전개	빅토리아
도시계획·주택	6	도시 관련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프로젝트 지속 추진	파리
	8	두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임대료 규제 공동 청원	바르셀로나
	9	‘부담가능주택 공급’ 추가 계획 지침 발표	런던
부록	13	2017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도시 녹지·가로수에 제초제 ‘추방’

수증기, 소나무껍질 완충제 사용 ...허브 식재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환경·안전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2017년 1월부터 도시 녹지와 가로수에 어떤 종류의 제초용 화학 용품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배경
 - 시정부는 더 자연과 가까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
 - 과도한 가지치기와 농약 사용을 자제
 -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너무 많은 물이 필요한 식물의 제거
 - 관개 시설을 개선하고 비용을 바꾸는 등 친환경적 방식의 병해충 방지 대책을 늘리는 중
 - 도시 녹지의 형태를 개선하고, 화학 제초제의 악영향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 2016년 10곳의 시범 지역에서 화학 제초제를 대신할 여러 방안을 시험
 - 잡초 방지용 허브 식재, 소나무껍질 완충제 사용, 수증기를 이용한 제초 등
 - 위 실험의 관찰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로 구체적인 제초제 금지 방안을 마련
 - 가로수와 도시 녹지의 관리를 희망하는 지역공동체 또는 학교와 공동 관리 시작



그림1. 소나무껍질 완충제 사용 가로수



그림2. 잡초 방지용 허브 식재

http://eldigital.barcelona.cat/es/arboles-y-espacios-verdes-libres-de-glifosat_460330.html

진광선 통신원, sunnyice@hanmail.net

행재정·교육

지역정책 주요 이슈에 시민의견 반영 플랫폼 구축

영국 버밍엄市 / 행재정·교육

- 영국 버밍엄市는 시민들이 지역 현안과 정책 정보를 쉽게 검색하고 관련 ‘협의회’(Consultation)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 ‘비 허드’(Be Heard)를 구축하여 운영 중
- 개요
 - 홈페이지를 통해 지역 현안과 정책에 관련된 협의회를 손쉽게 검색
 - 시민들은 다양한 루트로 협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종료된 협의는 결과 공개
 - 주요 기능은 ‘협의회 찾기’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 사례’의 두 가지
 - 시정부는 ‘비 허드’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범위를 확대 중
- 주요 내용
 - 협의 찾기(Find Consultation)
 -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마감된 버밍엄시의 모든 이슈를 볼 수 있음.
 -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협의 사례(We Asked, You Said, We Did)
 - 협의가 완료된 사항에 시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를 공개
 - 관련 내용을 ‘물었습니다’(We Asked), ‘말씀하세요’(You Said), ‘이렇게 했습니다’(We Did)의 3단계로 구분해 게시
- 주요 사례
 - ‘저속이 더 안전’(Slow is Faster) 정책
 - 학교 근처 차량 운행속도 제한을 기존의 30mph(48Km/h)에서 20mph(32Km/h)로 낮추는 방안
 - 정책 적용이 예정된 지역 주민들에게 협의회 참여 기회(온라인 설문조사, 이메일 등)를 제공하고, 협의 진행 중

- 킹스 노트 소년 학교의 입학 나이와 학년 변화 정책
 - We Asked: 해당 학교에서 영국 대학 입시(A-Level) 준비 과정 2년(the sixth form)을 없애는 방안을 건의
 - You Said: 학부모·지역 시민·학교 졸업생 등이 14건의 반대 의견을 제시
 - We Did: 의견을 정책 담당자에게 전달했으며, 4월 2일까지 결과를 공개할 예정

- 웨스트 히스 공원 개선 계획
 - We Asked: 해당 공원의 개선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안
 - You Said: 시민들의 압도적인 찬성과 지지
 - We Did: 시민들이 제시한 구체적 의견(피크닉 벤치 설치, 쓰레기통 크기 조정 등)을 반영한 개선 사업이 올 2월부터 시작

- 2017~2018년도 시 예산안 및 시민세 인상 안전에 대한 협의
 - 두 차례의 오프라인 공공 협의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와 SNS를 활용한 의견 수렴을 동시에 진행
 - 결과적으로 십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이 현안에 의견을 제시
 -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과 버밍엄 공원의 지원 예산 삭감 폭을 줄이고, 버밍엄 박물관에 대한 지원 예산 삭감을 철회

https://www.birmingham.gov.uk/news/article/56/after_listening_to_citizens_council_to_set_201718_budget

https://www.birminghambeheard.org.uk/we_asked_you_said/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환경·안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대응 캠페인’ 전개

호주 빅토리아주 / 환경·안전

- 호주 빅토리아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천 전략으로 ‘테이크투 선언 프로그램’(TAKE2 Pledgeing Program)을 마련해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전개
- 배경
 -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에 참가한 195개국은 지구 기온을 산업화 시대 이전보다 2도 이상 높이지 않겠다고 합의
 - 참여국들은 21세기 하반기까지 온실가스 순배출(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산림 등으로 흡수되는 양을 제외한 나머지)을 0으로 만들어야 함.
 - 호주 정부는 2016년 11월 9일에 이를 비준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 중
 - 빅토리아 주정부도 관련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외에 기업과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실천 전략의 필요성 대두
- 개요
 - ‘테이크투’(2도를 향하여)는 파리협정에서 합의된 지구 기온 상승 제한 목표치를 의미
 - 전 세계에서 가장 포괄적인 기후변화 실천 선언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음.
- 주요 내용
 - 모든 개인과 단체와 조직이 나름의 방식대로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참여자를 개인과 가정·기업·지방정부·교육기관·지역사회기관의 5개 단위로 구분
 - 주정부 환경부가 관리하는 웹사이트(www.take2.vic.gov.au)를 활용

- 절차
 - 참여자가 웹사이트에서 고유 프로필(profile)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
 - 제시된 실천사항 리스트에서 자신이 실행할 수 있는 행위를 선택하여 맞춤형 실천 계획을 수립
 - ‘개인과 가정’ 단위 실천사항 예시
 -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비영리 기관에 물품 기증 또는 판매 물품 구입, 비행기 여행 시 이산화탄소 환경기금(carbon offsets) 납부, 가정에 태양광 패널 설치, 자전거 출퇴근, 텃밭에서 음식 기르기 등
 - 실천사항은 하나만 선택해도 되고, 여러 개를 선택해도 됨.
 - 실천계획을 작성하면 참여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거주지역, 주택형태 등)를 바탕으로 웹사이트에서 맞춤형 실천 안내서를 이메일로 제공
 - 참여자는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수행 실적을 관리하고 다른 참여자들의 활동 내역과 실적도 볼 수 있음.
 - 테이크투 선언은 개인 또는 기관이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가능한 노력을 하겠다는 자발적인 약속과 다짐이며 강제적이지 않음.
- 진행 상황
- 2016년에 테이크투 선언 캠페인이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2,400건 이상의 선언이 접수
 - 29개 지방정부, 24만여 명의 학생을 보유한 학교와 대학교, 18만여 명을 보유한 80개의 지역사회 기관, 23만 명에 달하는 직원을 보유한 224개의 기업 등이 포함
 - 주정부도 테이크투 선언에 참여하고, 실천사항으로 2020년까지 정부 운영 과정에서 산출되는 온실가스를 2015년보다 30% 감축하겠다고 선언

<http://www.premier.vic.gov.au/emissions-target-kicks-off-more-climate-change-action/>

http://www.climatechange.vic.gov.au/__data/assets/pdf_file/0005/369032/DELWP0039_ClimateChange_Framework_v14.pdf

정용문 통신원, yong.jung@sydney.edu.au

도시계획·주택

도시 관련 대기업·스타트업 연결 프로젝트 지속 추진

프랑스 파리市 / 도시계획·주택

- 프랑스 파리市는 도시 관련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해주기 위해 ‘내일의 도시’(Immobilier de demain) 프로젝트를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

- 개요
 - ‘내일의 도시’는 도시 사업에 관련된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연결해주어 관련 프로젝트가 성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
 - 파리시가 ‘파리앤코퍼레이션’(Paris&Co)이라는 회사를 통해 개발하고 운영
 - 2016년 19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선정하여 20개의 프로젝트를 성사
 - 작년의 성공에 힘입어 2017년에는 25개의 스타트업을 선정

- 주요 내용
 - 목표
 - 파리를 최첨단의 열린 혁신도시이자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로 만들기
 -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최첨단 도시 환경을 구축
 - 젊은 스타트업들이 사라지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

 - 선발 조건
 - 1) 이제 막 창업했거나 발전 중인 창립 5년 이하의 신생 스타트업
 - 2) ‘내일의 도시’가 제시하는 주제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스타트업
 - 3) 서비스 또는 제품이 개발 중이거나 최초 공급을 완료한 상태일 것

 - 선발 기준
 - 1) 프로젝트, 제품 또는 서비스의 혁신적 성격
 - 2) 스타트업의 경제적 개발 잠재력
 - 3) 비즈니스 플랜의 진지함과 신뢰성

4) 대기업 파트너들의 비즈니스 전략과 화합 가능성

5) 프로젝트 실행 팀의 자질

- 2017년 ‘내일의 도시’ 프로젝트의 제시 주제
 - 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홈, 스마트 빌딩, 스마트 시티 등과 같은 IT 시스템
 - 한 건물 또는 공간의 다목적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공유 경제 기반의 건물과 공간 디자인
 - 건물이나 공간이 위치한 지역과 손쉽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건축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기술)과 3D 프린팅 시스템을 활용한 건축
 - 재화와 서비스의 적용과 분배를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실현
 -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활용한 마케팅
 -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보안
 - 테크놀로지를 활용해 장애인의 공간접근성을 제약하는 도시환경적 요소를 제거하는 프로젝트

<http://www.paris.fr/actualites/plateforme-immobilier-de-demain-lancement-de-l-appel-a-candidatures-pour-25-start-up-4557>

<http://candidatures.incubateurs.parisandco.com/fr/challenges/immobilierdedemain>

배세진 통신원, prophet1013@gmail.com

두 도시, 젠트리피케이션 막기 임대료 규제 공동 청원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 도시계획·주택

- 스페인 바르셀로나市는 마드리드市와 공동으로 젠트리피케이션(동지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에 임대료 규제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
- 개요
 - 스페인의 두 중심 도시는 최근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현재의 규제 완화는 주택 권리를 보존하지 않고,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는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
 - 이에 두 도시의 시의회 의원과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결성해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
- 주요 내용
 - 두 도시의 정계와 학계의 대표들이 분기별 1회 이상 모여 서로의 경험과 분석 결과를 공유
 - 주민과 전통 상인들이 이탈하고 지역사회의 정체성이 상실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합법적인 변화 방안을 모색
 - 현재 적용 가능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한 지역에 적용
 - 자료를 기반으로 앞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할 지역을 예측
 - 법률 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에 청원
 - ‘바르셀로나 대도시권 연구소’(Institute of Regional and Metropolitan Studies of Barcelona) 주최로 ‘젠트리피케이션과 시민의 권리’ 토론회 개최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la-transformacizen-de-los-barrios-a-debate>

<http://ajuntament.barcelona.cat/ecologiaurbana/es/noticia/grupo-de-trabajo-conjunto-entre-barcelona-y-madrid-para-evitar-la-gentrificacizen>

진광선 통신원, sunnyce@hanmail.net

‘부담가능주택 공급’ 추가 계획 지침 발표

영국 런던市 / 도시계획·주택

- 영국 런던市는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런던에 새롭게 공급될 주택의 절반을 ‘부담가능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
- 배경
 - 많은 런던시민이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나, 2014년 도시 계획에서 허가된 부담가능주택은 전체 공급주택의 13% 수준
 - 이에 따라 런던시장 사디크 칸(Sadiq Khan)은 앞으로 공급될 주택의 절반을 부담가능주택으로 선보이겠다는 목표를 제시
 - 효과적이고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런던시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부담가능주택 공급’이라는 추가 계획 지침(SPG: 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을 발표
- 개요
 - 추가 계획 지침(이하 ‘SPG’)
 - 기존의 부담가능주택에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지침서(Guideline)
 - 부담가능주택 개발 계획의 결정에 걸리는 시간을 가능한 줄이고, 현 시스템 안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부담가능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
 - 시민들의 부담가능주택에 대한 열망이 토지 가치 상승으로 연결되는 과정에 이 지침이 도움될 것으로 기대
- 주요 내용
 - SPG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
 - 1. 배경과 접근
 - SPG의 추진 당위성과 목적
 - 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공공성의 보장 방법에 관한 설명
 - 부담가능주택 사업 관련 결정사항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 등
 - 시민들의 관련 사업 이해도와 신뢰도를 증가

- 2. 사업 실현 기준 설정
 - 새로운 도시 및 지역 개발 사업은 전체 물량의 35% 이상을 정부 재정 지원 없이 부담가능주택으로 할 것을 고려
 -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 정부 지원금을 요청한 개발 사업은 철저한 심사와 검토를 통해 부담가능주택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도록 유도
 - 주택 사업자는 자가·임대·공동소유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계약 상품을 제시할 것

- 3. 사업 실현 가능성 검토
 - 사업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사업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주에게 현재 이용가치 이상의 혜택이 주어지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
 - 평가에는 시의회와 전문 평가단뿐 아니라 일반 대중도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 가능

- 4. 임대를 목적으로 한 주택 건설 가이드라인
 - SPG는 전통적인 ‘건설 후 판매’(Build for Sale) 방식과 별도로 ‘임대를 위한 건설’(Build to Rent)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공
 - 개발업자(Developer)들의 이익을 보장해주고 부담가능주택의 양적 증가를 확보하려는 정책
 - 개발업자들은 주택 가격 하락에 크게 영향받지 않고 주택 사업이 가능
 - 민간 임대주택보다 질 높고 장기 임대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제공
 - SPG에는 이미 완공된 부담가능주택의 주거비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

<https://www.london.gov.uk/what-we-do/planning/implementing-london-plan/supplementary-planning-guidance>

https://www.designingbuildings.co.uk/wiki/Supplementary_planning_guidance_for_London_SPG

https://www.london.gov.uk/sites/default/files/housing_spg_final.pdf

정기성 통신원, jkseong71147@gmail.com

2017년 세계 주요 도시 시장 신년사 (요약)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13
뉴욕市 빌 더블라지오(Bill de Blasio) 시장	15
보스턴市 마틴 월시(Martin J. Walsh) 시장	16
시애틀市 에드 머레이(Ed Murray) 시장	17
애틀랜타市 카심 리드(Kasim Reed) 시장	19
런던市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	21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22
오타와市 짐 왓슨(Jim Watson) 시장	24
파리市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25
리옹市 제라르 콜롱(Gérard Collomb) 시장	27

베를린市 /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 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 시장은 신년사에서 베를린 크리스마스 시장 테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시의 입장을 밝힘. 이후 1월 10일에 “결속되고 지속가능하며 세계로 열린 베를린을 위한 100일 프로그램”을 발표하여 행정부별 새해 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
- 12.19 테러에 대한 베를린시의 입장
 - 이번 사건은 우리가 테러에 얼마나 취약한지를 알려주는 동시에, 우리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도 확인해준 계기
 - 모든 폭력에 증오로 맞서기보다는 엄중히 법치국가의 태도로 대응할 것
 - 전쟁을 피해 베를린으로 온 이민자를 테러를 이유로 거부하지 않고, 법과 규칙을 지키며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환영할 것
- 2017년 새로 구성된 베를린 시정부의 목표
 - 행정 개선을 위해 매년 5천 명의 인원을 새로 고용
 - 10년간 대중교통에 20억 유로(2조 4천억 원), 노후학교 개선에 50억 유로(6조 원) 투자
 - 주택건설, 안전 향상, 어린이 빈곤 퇴치, 사회 취약계층 지원
 - 지난 경제성장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전 지역에 10년간 투자 진행
 -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열린 도시 베를린을 구축
- 2017년 행정부서별 100일 프로그램의 중점 사업들
 - 과학·연구 부서
 - 디지털도시 촉진을 위해 도이치인터넷 연구소·아인슈타인 연구소 등 지원
 - 젊은 과학자들의 취업 강화를 위한 법안 상정
 - 문화·유럽 부서
 - 문화적 다양성 강화를 위해 ‘다양성 서비스센터’ 설립
 - 문화예술인에 대한 모든 제도적 문화예술보조금 상향 조정
 - 베를린 한자구역과 갈막스 가로수길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 경제·에너지·기업 부서
 - 베를린 도시발전소 확장공사 완공과 기업적 운영방식 도입
 - 실업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베를린 교통티켓(Sozialticket)의 가격 인하

- 도시발전·주택 부서
 - 주택건설 지원금 확대 및 세입자 보호 강화
 - 사회주택의 집세 인상 단속
 - 더 많은 주거공간 창출을 위한 도시발전계획 ‘주거 2030 사업’추진
- 교통·환경·기후보호 부서
 - 자전거교통법 통과 및 자전거교통 동맹 체결 지원
 - 자전거 사고다발 구간의 안전성 강화
 - 시 에너지지원 사업, 기후보호지원 사업의 업그레이드
- 교육·청소년·가족 부서
 - 학교와 유치원 인프라 확충 및 개선
 - 학교건설과 시설보수에 2백만 유로(24억 원) 투자
 - 어린이 빈곤 예방 위원회 설치
- 내정·스포츠 부서
 - 도시의 안전감을 높이기 위해 알렉산더 광장에 경찰서 설치
 - 대중교통 안전을 위해 베를린시 교통공사와 경찰 간 협력 강화
- 통합·노동·사회 부서
 - 16곳의 미사용 체육관을 임시숙소로 활용하여 노숙자와 이민자 수용
 - 다문화적 행정을 목표로 하는 참여통합법을 추진
 - 노동시장의 디지털화에 맞서 노동보호 강화 및 재교육의 지속적인 개선
- 건강·평등 부서
 - 2017년 1월 1일 발효된 새 간병법에 대한 가이드북 발간
 - 언어장벽, 문화장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7개 국어로 발간
 - 새로운 성범죄법 홍보 포스터 “no means no”를 제작하여 시내 요식업소 500곳에 배포
 - 가사와 직장업무를 병행하기 쉽도록 법안 강화
- 사법·소비자보호·반차별 부서
 - 주택시장에서 차별금지를 위한 담당사무소 개설
 - 형사소송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심리 상담사 동반 법안 상정
 - 베를린 동물보호 사무소의 24시간 운영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6/pressemitteilung.546401.php>

<http://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7/pressemitteilung.549297.php>

뉴욕市 / 빌 더블라시오(Bill de Blasio) 시장

- 미국 뉴욕市 빌 더블라시오 시장은 뉴욕시의 미래상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도시”를 강조
- 치안
 - 뉴욕시의 범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낮아졌고, 테러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뉴욕시는 범죄와의 싸움에 집중하고 있으며, 치안 강화는 포기할 수 없는 과제
 - 경찰과 지역사회 간의 신뢰 회복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
- 교육
 - 뉴욕시 학생들의 졸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고, 학습 성과도 향상 중
 - ‘Pre-K for All’(Pre-K: 5세 이하 학교식 교육), ‘Computer Science for All’ 등 새로운 학습 시스템을 도입
- 임대주택(affordable housing)
 - 2016년 한 해 동안 공급한 임대주택과 저렴주택은 지난 25년간 최대 규모
 - 임대주택은 본래 최저 수입 계층을 위한 것이지만, 뉴욕시는 중산층의 임대주택 수요도 상당히 많으므로 이를 충족할 필요
 - 2024년까지 50만 명이 살 수 있는 임대주택 20만 채 건설을 목표로 예산 책정
- 이스트 미드타운(East Midtown)
 - 이스트 미드타운 개발 사업은 뉴욕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사업
 - 모두의 이익 증진을 목표로 통합적인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
- 2017년 주요 사업 요약
 - 1,300 레인 마일(lane mile: 도로의 길이에 차선의 개수를 곱한 단위)의 도로와 고속도로 추가 건설 예산 편성
 - 계속되는 교육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4만 개 이상의 학교 좌석을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 브루클린과 퀸스를 연결하는 노면 전철(Brooklyn-Queens Connector) 신설
 - 하반기에 시작될 페리 서비스(수상 운송 서비스)는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운행

<http://www1.nyc.gov/office-of-the-mayor/news/037-17/transcript-mayor-de-blasio-delivers-remarks-the-new-york-building-congress>

보스턴市 / 마틴 월시(Martin J. Walsh) 시장

- 미국 보스턴市 마틴 월시 시장은 지난 1월 17일 3년간의 시정 결과를 보고하고 2017년 시정 방향을 발표
- 지난 3년간의 성과
 - 실업률은 2.4%로 사상 최저를 기록했으며, 3년간 6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
 - 7,400세대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19,000세대 이상의 신규 주택을 공급
 -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 미국에서 창업하기 가장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현재 고기술 산업을 육성
 - 전체 노인세대의 수도요금을 30% 할인하고, 연간 700호 이상의 노인세대에 노후주택과 난방시설 개보수를 지원
 - 임금의 남녀 차별을 줄여 3,000여 명의 여성 임금을 인상
 - 도시 내 61개의 도시공원 및 놀이터를 개보수
 - 문화예술 펀딩을 시정부 예산에 추가
 - 많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도시종합계획 'Imagine Boston 2030'을 수립
- 2017년도 보스턴시의 시정 방향
 - 모든 지역에 좋은 일자리 창출과 유지
 - 공개공지(Open Space)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에 대규모 투자
 - 교통 기반시설 개보수로 관련 기능 업그레이드
 - 모든 시민에게 양질의 영유아 보육 및 유치원 교육 공급
 - 신규 학교들을 위해 1조 원 이상 투자
 - 커뮤니티 단위에서 공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집중
- 현재 실현 불가능한 주제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도시정부가 되기 위해 시민과 협력할 것을 강조
 - 커뮤니티 칼리지(공립 2년제 대학)의 학비를 무료로
 - 공공주택 확대
 - 범죄를 지어 구속되는 시민의 비율을 감소
 - 탄소배출 제로 실현
 - 공립학교와 양질의 대안학교(Charter School) 설립
 - 회사 본사들과 제조업을 다시 도시로 불러들이기

<https://www.boston.gov/departments/mayors-office/state-city>

시애틀市 / 에드 머레이(Ed Murray) 시장

- 미국 시애틀市 에드 머레이 시장은 2017년 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발표
- 주거복지 분야
 -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 시애틀에 있는 세계적 기업들의 빠른 성장에 따라 시애틀의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거복지 문제가 대두
 - 2억 9천만 달러(3,500억 원) 규모의 주거복지 기금을 마련했으며, 향후 10년간 세입자의 소득을 고려한 저렴한 주택(Affordable Housing) 2만호의 공급 계획을 수립
 - 2016년 1,725호의 주택을 공급했고, 3,512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 예정
 -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일정 규모의 주거복지 비용을 부담케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
 - 3,000명에 달하는 시애틀 내 노숙자들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Pathways Home Program)을 시작
- 교통 분야
 - 현재 국제공항과 워싱턴대학교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경전철 시스템을 확대 건설 예정
 - 도심지에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고 보행자 중심 도시를 조성
 - 기후변화에 대비해 화석연료를 대체할 전기 자동차 충전시설을 시 전체에 설치
 - 자동차 속도 제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추진
- 사회정책 분야
 - 트럼프 대통령 당선에 따른 반(反) 이민자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애틀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도시가 될 것을 강조
 - 에드 머레이 시장은 범죄가 의심되는 상황이 아닌 한, 일반 시민들에게 이민자의 지위·인종·민족·종교·성별·장애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는 행정 명령(Executive Order)을 발표
 - 또한, 25만 달러(3억 원) 규모의 펀딩을 조성하여 시애틀 공립학교 내 불법체류자 학생들의 지원 정책을 발표

- 교육 분야
 - 현재 시애틀 내 흑인·히스패닉 학생들 가운데 43%가 정상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어, 다양성을 중시하는 시애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이들에게 집중 지원을 할 예정
 - 이에 따라 2016년 시범 사업으로 추진한 흑인 남학생에 대한 집중 멘토링 프로그램을 다른 중·고등학교로 전파 예정
 -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여름 학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추진

- 치안 분야
 - 시애틀은 인종·민족·종교가 다양한 커뮤니티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커뮤니티들과의 조화를 경찰개혁의 핵심적 가치로 추진
 - 이를 위해 새로운 직제(Office of Inspector General: 감찰부서)를 신설하여 시애틀 경찰력의 정책 집행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시민들이 직접 경찰 서비스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커뮤니티의 의견을 토대로 한 서비스 개선에 집중

<http://murray.seattle.gov/page/3/>

<http://www.seattle.gov/hala/faq#What is MHA?>

<http://www.seattle.gov/homelessness>

<http://murray.seattle.gov/mayor-murray-signs-executive-order-affirming-seattles-welcoming-city-policies/>

애틀랜타市 / 카심 리드(Kasim Reed) 시장

- 미국 애틀랜타市 카심 리드 시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작년 실적을 발표하고, 신년에는 주택 공급·기업 유치·고용 창출·공공 안전 개선 등 도시의 경제발전에 힘쓸 것을 강조
- 주택 분야
 - 현재 진행 중인 22개 이상의 주택건설 프로젝트로 8천여 가구의 새로운 주택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
- 교통 분야
 - 2016년 주민 투표로 승인된 교통판매세(TSPLOST)로 5년간 약 3천억 원의 세입 창출이 예상
 - 2016년 6조 9천억 원을 투자하여 하츠 필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 공항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활주로를 신설하여 국제공항도시의 입지를 강화
 - 대중교통 시스템(MARTA) 확장에 약 3천억 원을 투입해 교통체계를 크게 개선할 계획
- 문화 및 예술 분야
 - 영화 및 미디어 산업을 적극 지원한 결과 미국 내 3번째, 세계에서 5번째의 영화도시로 성장
 - 문화와 예술산업에 대한 공공 기금 조달을 위해 판매세(sales tax)를 9%로 인상하는 개정안의 주민 투표를 주정부에 요청할 예정
 - 시 정부는 인상된 세금으로 예술가들을 적극 지원할 예정
 - 스포츠 및 공연시설 투자로 경제 발전을 유도
 - ‘필립스 아레나’(Philips Arena) 경기장을 보수하고 ‘메르세데스-벤츠 스타디움’(Mercedes-Benz Stadium)을 유치
 - 시설 유치와 함께 도시 기반시설의 보수를 병행할 예정
- 교육 분야
 - 도심지에 있는 조지아 주립대학과 주변부를 재개발하여 캠퍼스를 확장할 예정

- 공공 안전 분야

- 9백 명 이상을 신규 채용해 경찰 병력을 2천여 명으로 확대했으며, 이로 인해 2010년 이후 범죄율이 27%가량 감소
-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약 575억 원의 공채와 자선기금을 마련

<http://www.atlantaga.gov/index.aspx?recordid=4963&page=672>

<http://www.11alive.com/news/local/mayor-delivers-state-of-the-city-address/395780264>

<http://saportareport.com/mayor-kasim-reed-atlanta-seek-110th-penny-sales-tax-arts/>

런던市 / 사디크 칸(Sadiq Khan) 시장

- 영국 런던市 사디크 칸 시장은 ‘지난해를 반영하여 올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는 부제의 2017년 신년 인사에서 대기환경·치안·교통·주거안정을 주요 쟁점으로 강조
- 대기환경
 -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조로 한 대기오염 완화 계획을 발표
 - 런던의 대기 질은 해마다 9,500명이 대기오염으로 조기 사망할 만큼 심각한 수준
 - ‘21세기 깨끗한 대기 법안’(21st century Clean Air Act) 상정을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
- 치안
 - 런던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음.
 - 좀도둑부터 불특정 다수를 향한 대규모 테러에 이르기까지 치안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상황
 - 우선 런던 시내 곳곳에 경찰관(Police officer) 배치 인원을 더 늘릴 계획
- 교통
 -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심야운행 지하철(Night Tube)을 계속 운행하며, 적용 노선을 센트럴 라인, 빅토리아 라인, 노던 라인, 주빌리 라인까지 확대할 예정
 - 수백만 시민들의 출퇴근 요금 부담을 덜어줄 호퍼 버스 요금제(Hopper bus fare: 환승요금 감면제도)는 올해도 계속 이어나갈 예정
 - 지난 4년간 런던 지하철 요금을 동결하였고 올해도 요금을 올리지 않을 계획
- 주거안정
 - 세계 최고 수준의 집값을 자랑하는 런던의 주거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이 원하는 ‘정말로’(genuinely) 부담 가능한 주택(affordable homes) 수천 호를 올해 공급할 예정
 - 이를 위해 부담가능주택 공급 정책(Affordable Home Programme)과 추가 계획 지침(Supplementary Planning Guidance)을 시행할 예정

<http://www.itv.com/news/london/update/2017-01-01/mayor-sadiq-khan-wishes-londoners-a-happy-new-year/>

<https://www.theguardian.com/uk-news/davehillblog/2016/nov/29/sadiq-khan-sets-out-key-plans-for-more-genuinely-affordable-london-homes>

도쿄都 /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 일본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 도지사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도민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발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략적으로 전개할 것을 강조

- 모두가 활약할 수 있는 도시: 다이버시티의 실현
 - 아무런 걱정 없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기업 주도형 보육공간 조성 사업 지원
 - 보육사 등의 주거 방문형 보육 사업 지원
 - 고령자가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
 - 지역 포괄 지원 센터의 기능 강화, 특별 요양 노인홈의 지원
 - 공공 유휴 공간을 활용한 노인 요양 시설 건설
 -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회 실현
 - 장애인 직장 적응 프로그램 시행
 - 장애인 고용 우수 직장 표창
 - 의료의 내실화 및 건강 만들기 추진
 - 도쿄도 지역 구급 의료 센터 설립
 - 직장 건강 촉진 서포터 사업 추진
 - 누구나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마을 만들기
 - 공원 및 공공시설의 화장실 정비
 - 엘리베이터 등 각종 시설의 무장애화(barrier-free)를 추진
 -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인재 육성
 - 장애아동을 위한 스쿨버스 도입
 - 도립 고등학교 학생의 해외 유학 지원

- 일본의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글로벌 도시: 스마트 시티의 실현
 - 국제 금융 경제 도시의 실현
 - 외국 기업, 특히 금융계 외국 기업의 발굴·유치 사업
 - 세계에 열린 국제 관광 도시의 실현
 - 관광 경영·인바운드 대응력 강화 사업
 - 애니메이션 등 도쿄의 주요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객 유치 촉진 사업
 - 다양한 이벤트와 콘텐츠를 담은 관광지도 작성

- 교통·물류 네트워크 형성
 - 자전거 종합 대책 마련
 - 스마트 에너지 도시의 실현
 - 에너지 절약 운동 촉진 사업
 - 버스 정류장에 태양 전지판을 활용한 Wi-Fi와 충전기 설치 등 재생 가능 에너지 활용 촉진
-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 세이프 시티의 실현
- 지진 발생에도 무너지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도시 만들기
 - 전봇대의 지중화
 - 재해 발생 시 중요한 거점이 되는 학교 등 공공 건축물 등의 내진성능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
 - 수해에 강한 마을 만들기
 - 동부 저지대의 내진·내수 대책 추진
 - 재해 대응력의 강화
 - 피해자 등이 거주할 수 있는 도영 주택 확보
 - 방재 조직 활성화 지원단 계획 작성
 -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파견 상담사업 시행
 - 재래시장에 창업하는 젊은이와 여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시행
 - 육아 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촉진
- 성공적인 2020 도쿄 올림픽을 위한 준비
- 대회 이후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기장 조성
 - 2020 도쿄 올림픽을 계기로 한 스포츠 문화 교육의 진흥
 - 장애인 스포츠 관전 촉진 및 장애인 스포츠 선수 육성 사업
 - 시니어 선수의 발굴 및 육성
 - 봉사활동 문화의 정착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7/01/25/09.html>

http://www.metro.tokyo.jp/tosei/hodohappyo/press/2017/01/25/documents/09_06.pdf

오타와市 / 짐 왓슨(Jim Watson) 시장

- 캐나다 오타와市 짐 왓슨 시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주목할 만한 5가지 도시 발전 사항을 발표
 - 첨단 과학 강조
 - 무인 자율주행자동차를 시운전하는 등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
 - 캐나다 도시 중 5G(무선 네트워크 신기술)에 가장 큰 규모의 연구 개발비 투자
 - 문화 예술 부문 강화
 - 신규 시립 미술관 설립 예정
 - 경찰력과 치안 정책 보완
 - 2016년 오타와시 살인사건 발생률이 최근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여 총기나 칼과 같은 무기 관련 정책을 보완
 - 대중교통 접근성 강화
 - 2023년까지 시민의 70% 이상이 대중교통시설로부터 5분 거리 이내에 살 수 있도록, 경전철을 신설하고 버스 연계노선을 보완
 - 도서관 시설 강화
 -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필요한 정보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 도서관 등 공공서비스 인프라를 강화

<http://ottawacitizen.com/news/local-news/5-things-watsons-2017-state-of-the-city-speech>

<http://www.cbc.ca/news/canada/ottawa/ottawa-mayor-jim-watson-state-of-city-analysis-1.3952600>

파리市 /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 프랑스 파리市 안 이달고 시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다섯 가지 중요한 목표를 제시
-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
 -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파리기후협약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노력
 - 대기오염 감소를 위해 보행자와 저전거에게 더 많은 공간 제공
 - 2016년 자전거 도로를 두 배로 늘리고 대중교통을 더욱 발전
 - 센강 좌안의 보행거리화 성공을 발판삼아, 센강과 파리 중심부에 더 많은 녹색 공간 조성
 - 파리의 지붕과 벽과 거리마다 녹색화 작업 추진
 - 재생가능 에너지의 소비 증진
 - 2016년에는 전기차 지원을 강화하고 크리테르 허가증(Crit'air: 차량의 오염도를 나타내는 증서로 파리에 등록된 모든 차량이 의무 부착) 제도를 신설했음.
- 202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지에 선정되도록 노력
 - 파리의 이미지에 맞게, 즐겁고 다양하며 모든 시민이 함께하는 올림픽을 기대
 - 파리와 주변 지역에 있는 재능 넘치는 젊은이들은 파리의 가장 훌륭한 장점이며, 이들이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위한 핵심자원이 될 것
- 지역 상인을 위한 지원과 혁신 정책을 추진
 - 세계에서 가장 큰 스타트업 양성소가 될 '스타시옹 F'(Station F)의 개장은 이러한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
 - 파리를 유럽의 녹색 금융 수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젊은이와 가정, 특히 중간계층의 일상을 위한 노력
 - 2016년 7,500개의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650개소의 탁아소를 신설
 - 2016년 시민을 위한 교육·문화·스포츠·의료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범죄 예방을 위해 순찰대를 더 많이 설치
 - 앞으로도 사회적 연대에 기반을 둔 더욱 따뜻한 파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 파리의 민주주의가 더욱 살아 숨 쉬도록
 - 시민들이 자기가 사는 지역에 스스로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실현을 돕는 참여 예산 시스템을 더욱 강화할 예정

- 맺음말
 - “2017년, 우리의 파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한 사랑과 연대를 향한 노력으로 더욱 빛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http://www.paris.fr/actualites/anne-hidalgo-presente-ses-voeux-aux-parisiens-2060>

리옹市 / 제라르 콜롱(Gérard Collomb) 시장

- 프랑스 리옹市 제라르 콜롱 시장은 2017년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관광산업과 생명과학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도시 재정비 방안을 제시
- 2016년 회고
 - 세계적으로 테러가 끊이지 않은 비극적인 해였으나, 야만에 대해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의 답은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
 - 테러 위협에도 유로컵을 정상 개최했으며, 이탈리아 토리노 주민과 함께하는 춤 비엔날레와 리옹 최고의 축제인 빛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
 - 불황 속에서도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
 - 생명과학·녹색화학·천연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
 - 2016년 주말여행 최고의 인기 도시로 자리매김
 - 새로운 멀티플렉스 문화상업지구 콩플뤼앵스(Confluence)의 건설
 - 과거 시민들이 기피하던 뒷골목을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
- 2017년 주요 계획
 - 고속도로 A6-A7 부지 용도 변경
 - 고속도로 부지에 자연경관이 가득한 대로를 건설
 - 론강을 따라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조성해 리옹 중심부까지 연결
 - 제홀랭(Gerland) 지역에 저명한 생명과학 기관을 비롯한 많은 기업체를 설립
 - 파르디유(Part-Dieu) 기차역 리노베이션
 - 면적을 두 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외관을 새롭게 디자인
 - 구역 내 종합상가도 옥상 주차장을 공원으로 개조하는 등 리노베이션
 - 여행객들이 거쳐 가는 공간이 아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시설을 확충
 - 주요 도로와 시 병원을 재정비
 - 빈곤화되고 계도화된 구역을 점진적으로 개선
 - 해당 지역은 급진적 사상(급진적 이슬람주의)이 뿌리내리기 쉽고, 빈곤에 따른 절망감이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음.
 - 종교의 차이를 넘어 함께 사는 마을을 건설하는 것이 사회적 약자를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리옹의 휴머니즘적 전통을 계승하는 일

<https://fr-fr.facebook.com/notes/gérard-collomb/voeux-aux-corps-constitués/1593302577352784>